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 갈옷’ 사진 제작 연구

(‘몽생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사진학과 광고사진전공
윤 성 희

‘제주 갈옷’ 사진 제작 연구

(‘몽생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지도 교수 최 군 성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월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학과 광고사진전공
윤 성 희

윤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2004년 1월

< 목 차 >

I. 작품 제작의 개요 1

II. 서론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3

III. 본론

1. 갈옷의 유래 5
2. 촬영장소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설명 9
3. 작품의 분석 17

IV. 결 론 23

V. 작 품 25

참고 문헌 41

ABSTRACT 42

I. 작품 제작 개요

갈옷은 제주인들에 의해서 고안된 최초의 노동복으로 옷으로뿐만 아니라 과거 제주인들의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삶의 한 단면과도 같다.

옷을 만들 옷감이 귀한 데서 갈옷이 만들어진 배경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감물을 들임으로써 풀을 먹일 필요도 없고, 노동하다가 먼지가 묻었을 때에는 입은 채로 목욕하면 고무옷처럼 싹 씻겨 내려가는 등 경제적이고, 위생적이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던 억척스러운 제주도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노동복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도 여름철의 농부들이나 일반인들이 평상복, 외출복으로 갈옷을 즐겨 입고 있으며, 세련되고 우아하게 브랜드화되어 수출 등의 판로가 모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 논문은 '몽생이' 라는 회사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 제작을 목적으로 촬영하였다.

몽생이는 작은 소규모 회사이다. 아직은 시작 단계로 감물을 들이고 원하는 색상을 얻기 위한 작업에 열심이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길타기를 7년, 정직하게 갈옷을 만들어 내는 회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에도 소개되고 제주하면 갈옷, 갈옷하면 '몽생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몽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제주도적'인 갈옷을 표현하고자 한다.

갈옷은 제주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같이 했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 상황에서 제주도인의 자주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하였다.

갈옷은 입을수록 그 색깔이 제주의 흙색을 닮아간다.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갈옷처럼, 조용히 그들의 삶에 순응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주도민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했다.

제주도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해 제주도민이 생활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아픈 역사일 수도 있고 화해의 공간일수도 있는, 삶 그 자체를 표현해보고자 함이다. 작품 속에 나오는 장소들은 제주도인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관광객들을 위한 아름다운 풍경만은 아닌 것이다.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는 장소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 공간에 '몽생이' 갈옷이 함께 있다.

같은 시간성을 가지진 않더라도 장소가 갖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고자 함이다.

II. 서 론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오늘날 사람들은 소비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의생활을 추구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의료의 위생이나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급속한 과학의 진보에 의한 새로운 섬유의 개발은 의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각종 화학 물질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복의 염색에 있어서도 합성염료보다 천연염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 그런 면에서 갈옷은 대체의학 측면에서도 으뜸이다. 자연염색이어서 화학섬유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수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갈옷의 대중화를 위해 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제주를 관광지로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터를 닦고 살아온 이들에게 제주는 중요한 생활 터전이며, 또한 아픈 역사를 간직해온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곳들을 촬영장소로 정했다.

작품속의 장소들은, 무고한 양민 132명을 함께 암매장하여 파헤쳐진 탄약고, '백 명의 조상에 한 명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진 무덤,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 거친 자갈밭에서 밭을 일구어내기 위해 하나씩 쌓았던 것이 커다란 띠를 두르게 된 돌담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봉분 주위로 네모지게 쌓아올린 무덤 산담, 해안이나 밭담 등에 마을의 액을 막으려는 의미로 세워진 방사탑, 거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 나가 강인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해녀,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육지의 산과는 다른 부드러운 곡선으로 생긴 봉우리 오름, 제주 어디를 가도 나오는 바다, '절오백 당오백' 이라는 말처럼, 제주의 많은 신들이 모셔진

---

1) 이화영『갈옷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8. 2.pp

당, 고려시대 때 삼별초에 의해 쌓여진 환해장성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들은 갈옷이라는 질긴 옷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갈옷은 제주도민들이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생명력과도 같다. 험난한 역사 속에서 살아 난 사람들이 입었고, 여전히 그들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옷이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색다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통옷의 카탈로그 형식과는 차별화를 두고 촬영하고자 했다.

이것은 갈옷이 가지는 역사성과 갈옷하면 빠질 수 없는 제주도의 풍광들을 같이 촬영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며, 결국은 제주의 삶 자체가 역사의 한 증거라는 것을 사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 계획하게 된 것이다.

아픈 현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제주도민들, 그래서 표정 또한 밝은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갈옷의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칼라 네거티브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험난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배경을 어둡게 하였다.

II. 본 론

1. 갈옷의 유래

인간의 미의식의 변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생태계에 짜 넣어진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연회귀 의식이 더욱 강조되어, 개성적인 상품의 요구 등은 천연염료를 염색한 전통의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 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갈옷(Gal-ott)은 감물로 물들인 옷으로, 감의 탄닌 성분에 의해서 항균 효과까지 지니고 있는 위생적 기능성을 가진 우수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2)]

천연염료에서 얻은 색소는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이 있으며,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식물성 색소이다. 이것은 천연폐기물의 자원화, 수질 오염의 방지, 우아한 색조, 일부 항균 성능까지 지니고 있는 등, 합성염료가 가지지 못하는 장점 때문에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고립된 여건과 박한 풍토라는 자연 환경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탈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등, 문화교류의 단절과 문화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이조와 순조까지 약 2세기(1629-1830) 동안의 '도민출육금지령(島民出陸禁止令)'[3)]은 인적교류와 문화의 단절을 초래할 뿐더러 폐쇄된 고유성을 더욱 굳히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여건들에 의해 고유의 의복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노동복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들

---

2) 동논문 2.p

3) 도민출육금지령(島民出陸禁止令) 인조 때부터 강요된 것으로, 제주도민들이 빈곤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육지로 떠나는 것을 금지했으며, 제주인과 육지인의 결혼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제주도가 정치 영역에서는 제주도가 조선조에 속해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의 생활은 노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환경적 특성 속에서 살아가야했던 생활상은 물질문화라든가, 정신문화 특히, 문학이나 속담, 노동요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은 박한 상황 속에서 생존의 방법과 의미를 터득했으며, 의식 속에는 불우한 생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극기심과 자립심을 생활신조로 세우게 되었다. 제주인 생계관은 천재지화인 삼재(風.水.旱)와 정치적 현실의 냉대 속에서 배고픔을 참아 내면서 삼무(無大門, 無盜賊 無乞人)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면서 절약하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을 스스로 키우면서 살아온 삶의 보상이었던 것이다.[4)]

갈옷은 제주도 서민층의 작업복이자 일상복으로 최근까지 입혀져 온, 제주도를 상징하는 옷이다.

갈옷이 언제부터 입혀져 왔는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어떤 사람은 몽고의 풍속이라고 하지만 근거가 애매하다. 지금부터 약 700여 년 전 한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싯줄이 자주 끊어짐을 민망히 여겨 감물을 염색한 결과, 질기고 고기도 더 잘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낚싯줄에 풋감 즙으로 염색하는 풍습은 제주도에 실제로 있었다. 제주도 민구 조사보고에서 <줄을 질기고 또 뻣뻣하게 하여 갈치를 낚는 도중에 줄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야만 완전한 갈치 술이 된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 놓은 줄은 20여 년 동안 쓸 수 있는데,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풋감 즙이나 돼지나 소의 피를 칠해 건조시켜야 하고 또 이 줄은 자리잡이 어로에서는 '벼릿줄'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조 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350여 년 동안 시신과 함께 관속에 들어 있던 면직물이 풋감 즙으로 염색된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감물 염색법이 350여 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갈옷이란 명칭이 가죽옷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

4) 고부자, 『제주복식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 1986, p.80

피의 문화권에 속하는 제주도에서는 주호시대 이래로 개가죽, 돼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한반도의 농경 문화권으로 통합된 후에 변용되어 직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여 입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견해를 정리해보면, 갈옷이란 말이 제주도에만 있으며, 가죽옷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갈옷은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 의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처럼 감물을 들여 입게 된 시기는 이조시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제주 가옥마다 예전에는 감나무가 쉽게 눈에 띄었는데, 육지의 감과는 달리 직경 3-4cm 정도로 작고 씨가 많기 때문에 식용보다는 주로 물을 들일 때 사용하였다. 풋감을 이용한 염색의 원리는 풋감 즙에 들어 있는 떫은맛의 탄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서 섬유를 빳빳하게 만들며 햇빛에 노출시키면 점진적으로 산화, 중합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갈옷은 무명천에 감물을 입힌 옷이다. 7-8월경에 풋감을 따서 으깬 것을 광목천에 골고루 묻힌 다음 주물러 감물을 흠뻑 들이는데, 이 광목천을 약 10일 정도 직사광선에서 말리면(이 과정을 '바랜다'라고 한다) 차차 황토색 빛깔이 짙어지면서 풀 먹인 옷처럼 빳빳해진다. 햇볕을 잘못 쪼이거나, 장마로 인해 제대로 말리지 못하면 풀기가 죽어 후줄근하고, 빛깔도 거무튀튀한 흑갈색으로 되며, 견고성도 떨어지게 된다.

옷을 지어 처음 입으면 약간 빳빳한 편이나 몇 번 입고 나면 부드러워져 일옷으로 아주 편하다. 감물로 염색하였으므로 더러움이 덜 타고 세탁할 때 비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세탁 후 뒷손질이 필요 없으며, 한 벌이면 2년은 족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질기다. 감물이 방부제 역할도 하여 땀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밭일을 해도 물방울이나 오물이 쉽게 붙지 않아 위생적이다. 좀 입다보면 부드러워지고 갈색으로 변한다. 낡은 것은 아기들의 포대기나 기저귀로 이용되고, 더 낡으면 걸레로도 썼으며, 또 질기고 더러움이 덜 타므로 헌 바구니나 멍석, 포대, 가마니 등 떨어진 곳을 깁는 데도 이용되었다.

이렇듯 갈옷은 척박한 땅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의 역사와 함께 했으며 오늘날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촬영장소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설명

㈀ 진지동굴

제주를 돌아다니다보면 도처에 인공적으로 파놓은 많은 굴과 군사시설의 잔해를 목격할 수 있다. 그 규모가 대단히 크고 범위가 전도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왜 일제는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았을까? 일제는 1945년 2월 미군이 필리핀에 상륙한 이후 계속 밀리게 되자,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결 7호 작전'을 수행하며 제주도에 7만 4천여 명의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25만 여명이었으니 엄청난 병력이 제주에 들어온 것이다. 타 지역에서 광부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도민들도 징용으로 끌려 나갔다. 이들은 비행장을 만들고 해안지역에 이른바 '인간어뢰'라 불리는 <카이텐> 등을 숨기기 위한 동굴을 파야 했고, 산악지역에서는 미군과의 유격전에 대비하여 유격진지를 구축해야 했다.

제주도에는 지금도 당시 일제의 군사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송악산, 수월봉, 일출봉, 삼매봉, 사라봉, 함덕봉 등의 해안자락에는 각 20여 개의 동굴들이, 그 외 어승생악, 가마오름 등 산악지역에는 유격진지로 구축됐던 토치카며 동굴들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태평양전쟁 말기의 처참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 유적지인 셈이다. 이러한 전쟁의 찌꺼기들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결코 지울 수 없는 비운의 흔적이다.[5]

㈁ 백조일손지지묘(百祖一孫之地)

갑자기 희생당한 1백30여 명의 시신을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어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는 백조일손지지묘(百祖一孫之地)의 뜻은

5) 송재호, 『제주 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p.181

‘조상은 백이 넘어도 자손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하여 붙여진 이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자의 서러움과 초라하게 살아남은 자의 아픔이 함께한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좌익분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제주지구 계엄당국으로 하여금 양민들과 보도연맹원, 4·3항쟁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 등 다수를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검거해 대량 학살했다. 1950년 8월 20일 새벽 2시에 처형된 이들의 시신은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새벽 5시에 처형된 1백 32명의 시신은 6년 8개월만인 1957년 4월 8일에야 비로소 수습될 수 있었다.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뼈만 맞추어 같이 묘를 쓰고, 같은 날 제사를 올리니 한 자손이나 같다는 슬픈 내력을 안고 있다.

㈃ 돌담

돌과 바람이 없는 제주도를 상상할 수 없다. 돌을 빼놓고 제주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으며, 바람을 마주하지 않고 제주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지천으로 널려 있는 돌과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바람 속에서 삶을 일구어야 했던 제주 사람들, 그들에게 돌과 바람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여겨져 왔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바람과 돌과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제주의 바람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지독해서 ‘바람이 할퀴고 간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모질다.

게다가 제주의 토양은 화산회가 쌓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따라서 바람이 한바탕 불면 기름진 흙가루와 애써 뿌린 씨앗이 모두 날아가고 만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숙명으로 삭히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척하고 땅을 다스리는 슬기를 돌과 바람에서 체득했다. 돌담은 제주인들이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 온 생활문화 유산인 것이다.

이 모든 돌들은 대부분 바람과 얽혀 있다. 바람을 이기기 위해, 달래기 위해, 때로는 비껴가거나 이용하기 위해 돌을 앞세웠다. 제주사람들은 돌과 더불어 살다가 돌로 돌아가는 것이다.[6)]

---

6) 문무병·박찬식·문소연, 『돌과 바람의 섬 신들의 나라 제주』, 제주도, 2001

사람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김없이 돌담들이 쌓여있는 곳, 제주는 섬 전체가 거대한 돌담띠를 형성하고 있다. 돌담으로 둘러싸이고 게다가 돌담에 의해 나눠지기도 하는 제주의 밭들. 제주성, 정의현성, 대정현성의 돌담들. 환해장성, 진성, 성담 등의 방어용 돌담들. 마을과 마을 사이 경계선에 쌓은 켓담들, 숲지대가 시작되는 곳에 쌓아 소와 말의 출입을 막았던 궁림담들. 집터의 경계에 쌓았던 집담과 우잣담들. 그리고 산담들.

이 거대한 돌담띠로 제주는 흑룡만리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을 빗댄 황룡만리가 있다. 만리장성의 실제 길이는 6천 리에 불과하지만 제주 돌담들의 총 연장 길이는 9천 7백 리에 이른다 하니 그야말로 '만리잣담'이 아닐 수 없다.

㈃ 산담

오름, 돌담과 더불어 독특한 풍경을 이루는 제주. 무덤은 돌이 많은 제주의 특성을 이용하여 봉분 주위로 네모지게 쌓아올린 돌담이 특이하다. 이 돌담을 제주에서는 '산담'이라 하며, 산담을 쌓다가 시문이라 하여 남성 무덤은 왼쪽, 여성 무덤은 오른쪽에 50cm 쯤 통로를 만드는데 이를 조상신의 출입구라 한다. 산담은 영혼의 집이자 울타리이다. 동시에 묘가 불에 태워지거나 방목 중인 소와 말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소와 말을 놓아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초지를 얻기 위해 들판에 불을 놓는 관행이 있었다.

제주 사람들은 돌구들 위에서 태어난다. 사는 집 자체가 돌이며 집을 두른 울타리도 돌이고, 바깥세상을 들고나는 올레도 돌이다. 걸어 다니는 길도 돌길이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활도구들도 다 돌이다. 그런가 하면 생산 활동의 터전인 물밭도 돌밭이요, 그것을 둘러싼 울타리도 돌이다.

돌과 더불어 한 세상을 산 제주 사람들은 죽어서는 작지왓(자갈밭)에 묻히고 그 무덤은 돌로 쌓은 산담으로 둘러쳐진다. 그리고 그 영혼은 무

덤 앞에 마주 서있는 돌로 만든 석상 '동자석'의 수호를 받는다. 이처럼 산 자보다 죽은 자에 더욱 열성을 보인 이유는 제주의 상황이 삶을 영위하는 데 무척이나 어려워 죽어서나마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7]

무덤의 봉분 자체가 바로 오름을 닮은 것도 그렇거니와 오름 자락에 떼지어 있는 무덤들과 오름의 분화구 안까지 자리 잡은 무덤들은 오름 자체가 제주도민들의 생활 속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 돌 하나의 염원 방사탑

제주에는 예로부터 탑을 쌓아 마을의 액을 막으려는 민간신앙이 있다. 해안이나 밭담 등에 세워진 방사탑이 그것이다. 방사탑이라는 용어는 연구자들에 의한 개념적 용어이고, 원래는 마을마다 각각이다.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으로는 '마을답', '거욱대', '까마귀' 등이 있다.

제주의 방사탑은 무심코 쌓아올린 돌무더기가 아니다. 흉년이나 풍랑 등 마을의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관이나 심방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쌓아올린 기원이다. 탑을 쌓아올릴 때에는 밥주걱과 솥을 묻고 그 위에 돌담을 사람의 키 높이 이상 올려 쌓는다. 밥주걱을 묻는 이유는 솥의 밥을 긁어 담듯이 외부의 재물을 마을 안으로 담아 들이라는 뜻에서고, 솥을 묻는 것은 무서운 불도 끄덕 없이 이겨내는 솥처럼 마을의 재난을 방역해 달라는 뜻에서이다.

방사탑은 육지부의 장승, 솟대, 미륵돌의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액운과 살을 막아준다는 풍수지리적인 '방사의 기능' 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수호, 전염병의 예방, 해상의 안전, 아이를 낳고 길러주는 소원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 해녀

해녀는 세계가 보호할 가치를 가진 인류의 유산이다. 해녀란 명칭은

7) 강정효, 『화산섬, 돌이야기』, 제주 <도서출판 각>, 2000

일제시대 이후 굳어진 것으로 원래는 '좀녀'이다. 해녀는 제주섬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1931~1932년 사이에 구좌읍 지역에서 부춘화, 김옥련 등의 해녀를 중심으로 일어난 '해녀항쟁'은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나 참가하면서 순수 여성집단에서 주도한 국내 최대규모의 항일 투쟁으로 평가된다. 해녀들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대우와 해녀권익을 위해 발족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폐단에 대한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일어난 해녀항쟁은 한국여성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녀사회는 공동체적 결속이 매우 탄탄하다. 거친 삶을 이겨내기 위해 저들만의 규율로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보호한다.

㈀ 오름

제주의 오름들을 단순하게 자연의 일부로만 바라본다면 부드러운 곡선과 오묘한 초록빛으로 이루어진 봉우리일 뿐이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제주의 오름은 충분히 독특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오름은 저마다 품고 있는 제주사람들 삶의 역사를 지금껏 이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8)]

오름이란, 야트막한 산을 지칭하는 제주방언으로서 제주화산도상에 산재해있는 기생화산구(寄生火山丘)를 말하는데, 한라산체의 산록상에서 만들어진 개개의 분화구를 갖고 있는 소화산체를 의미하고 있다.

제주인의 모습은, 제주인의 삶의 체취가 묻어있는 자연조건 중 하나인 오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제주인들과 그들의 선조들은 한라산과 그 산록에 산재해 있는 오름에 순응하며 오름과 함께 살아왔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름은 제주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아름다운 산등성이의 라인을 지닌 풍경으로 기억되기 쉽겠지만, 제주 사람에게는 오름이 관광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인 것이다.[9)]

---

8) 강수헌, 『제주의 오름』, 서울 <대왕사>, p.3
9) 고남수, 『사진적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오름』, <경일대학교>, 2002, pp.2

160여 개나 된다는 제주의 오름, 예부터 제주 사람들은 오름 주변에 마을을 세웠다고 한다. 밭을 일구어 곡식을 키우고 목축을 하여 생활했으며, 신앙의 터줏자리로 신성시하는 한편, 죽어서는 오름에 뼈를 묻었다고 한다. 오름은 자연이자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 바다

제주 사람들의 세상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자그마한 섬에 붙박아 살았던 제주인들은 자신들을 에워싼 바다 때문에 육지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원망하였을지도 모른다. 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라산은 남과 북, 동과 서를 막아버린 장벽으로서 신비의 영산으로 경원시되었다. 한시도 거르지 않고 불어오는 모진 바람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만큼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지천으로 깔려 있는 현무암질의 시커먼 돌들은 농토가 아쉬운 제주인의 마음을 음울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인 토지는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뜬땅, 자갈밭이 대부분인 제주섬에서 풍족한 생산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제주인들은 섬의 폐쇄성을 바다를 통하여 개척해 나갔다.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변방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隔絶)의 공간이었고, 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방의 시기 1천 년 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신세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 시기 제주도인들에게는 섬과 바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어도 정신' 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 조선왕조 말기 빈발하였던 민란 과정에서 나타났던 '별국(別國) 건설' 의 지향은 변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제주인들의 잠재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10]

㈑ 당

제주섬은 신화의 보고이다. 1만 8천여 신들이 이 작은 섬을 주재하고

10)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2001, p.99

있다. ‘절오백 당오백’ 이라는 말도 제주섬의 신들이 그만큼 많음을 뜻하는 것이다.

제주섬의 신들과 인간의 만남은 굿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화란 제주에서는 ‘본풀이’라고 하는데 굿을 할 때 부르는 굿본이다. 제주사람들은 저승법과 신의 질서를 나타내는 굿(본풀이)을 통해 악, 부정, 병 등 이승의 무질서를 바로잡으며 공동체를 이끌었다.

제주의 민속은 굿을 하는 풍속이 주종을 이룬다. 이 때문에 제주섬을 '신들의 고향'이라 부르는 것이다. 제주 사회는 1만 8천여 신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신들의 집, 특히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집을 당이라 한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죽음, 질병과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이다. 수렵과 목축, 농사와 어로를 보호해주고 물질을 하는 해녀를 수호하기도 한다. 아이를 낳게 하고 길러주는 신도 있으며 심지어는 피부병을 고쳐주는 신도 있다. 당은 단순한 성지, 신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 제주인의 집단적 미의 체험과 역사의 축적물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이다. 마을사람들이 굿을 통해 신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설촌조상과 영적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 환해장성

동북아의 작은 섬 제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경영을 꿈꿨던 대제국들과 슬프고 처절한 인연을 간직하고 있다. 징기스칸으로 대표되는 몽골제국, 제국주의 시대 제주섬에까지 진출한 프랑스,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일본, 오늘의 세계 대제국 미국, 이들과의 인연을 제주도 내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삼별초는 대몽항쟁을 위해 향파두고성(내성), 고토성(외성), 고장성(환해장성), 애월목성을 쌓았다.

환해장성은 제주도 연안에 빙 둘러있는 성을 말한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삼별초가 진도를 근거지로 삼자, 고려 조정에서는 영암부사 김수와장군 고여림을 제주도로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성

을 쌓아서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였다. 그런 이들이 삼별초에 패한 뒤, 삼별초에 의해 관군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쌓아졌고, 조선조에 와서는 왜구를 막기 위한 성벽으로 변하여 여러 차례 증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해장성은 자연석으로 쌓은 제주 특유의 성곽으로, 아래가 넓고 위로 올라올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돌담을 쌓듯이 쌓은 성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들이 돌무더기를 타고 올라오면 무너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작품의 분석

(사진1) 알뜨르 비행장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 중 하나는 밭이다. 이중에서도 “알뜨르 평야”는 제주도에서 드물게 보이는 넓은 평원지대로 농사가 잘되는 옥토이다. 먹고 살기위한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우리 조상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넓고 청명하게 푸르른 평야 앞에서 그들의 “한”과 함께 숨을 쉬는 듯 했다.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감자들의 생명이 끈질긴 제주인들의 삶과 같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농토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3명의 모델들이 여전사의 모습이 되어 지키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사진2) 바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육지로의 연결이 끊어져있다.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그 당시 제주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다. 다른 이들에게 몸을 날려서라도 자신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싶었을 제주도인들의 절실했던 마음이 모델의 모습에서 묻어 나온다.

(사진3) 무덤

제주의 무덤은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 있다. 제주인들은 사는 집 근처, 일하는 밭 한가운데에 조상의 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주위로 낮은 담을 쌓는다.

산에 있으면 수많은 나무들과 같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무덤 주위에 있으면 그 무덤 안에 있는 영혼들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수많은 무덤들을 배경으로 해서 누워있는 모델이 죽은 이들과 교감하는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무덤에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하기 위해 귀

를 기울여 본다.

(사진4) 4·3 학살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이 학살터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곳은 없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인들의 죽음은 참으로 애처롭다.

갈옷은 연한 갈색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우리 피부의 색깔과 비슷해 보인다. 과거에 탄약고였던 이곳에 무고한 양민들이 암매장되어 죽어간 이미지들을 그 느낌 그대로 옮겨보고 싶었다.

광각렌즈를 사용해 넓은 공간 속에 죽어있는 모습을 재현했다.

지금도 탄피들이 널려 있는 이 곳에서는, 바람소리에 묻혀서 원성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사진5) 환해장성

쫓기고 쫓기다가 제주까지 온 삼별초는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일까? 여기에 모델들을 제주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 성격의 인물들로 묘사해보았다. 해질녘은 해가 완전히 사라진 어둠이 오기 바로 전이다. 어둠(적)이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표현해 보고자 했다.

(사진6) 백조일손지지묘

‘백 명의 조상에 한 가지 자손’이라는 말은 곧, 같은 날 한꺼번에 죽어서 그 모두가 같은 조상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유난히 한동네에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장소에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조상네들과 한 몸이 되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사진7) 산담

제주 곳곳에 툭툭 튀어 오른, 어떤 곳은 너무 낮아 뒷동산 같고 어떤 곳은 그 높이나 위엄이 산 못지않다. 올라가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오른 후의 느낌도 제각각이다. 제주를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의 전설에 오름이 나온다. 할망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치마폭에 가득 흙을 펴 날랐다고 한다. 나르면서 한 줌씩 놓은 것이 제주의 오름이다. 오름은 제주도인들의 생활터전임과 동시에 적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역할도 했다. 오름과 오름사이에 봉화대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주인들은 오름에서 태어나서 오름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산담(무덤 주위의 담)은 이 오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의 옛 조상들이 살아생전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죽어서나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담의 한쪽에 구멍을 만들어 죽은 이의 영혼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점에 착안하여 자유롭게 구멍사이를 넘나들다가 잠시 돌담 위에 앉아 쉬고 있는 죽은 영혼의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무덤의 봉분이 오름을 닮아, 뒤에 보이는 오름과 그 모양을 같이 담아 보았다. 죽어서 오름에 묻히는 사람들….

(사진8) 서낭당

신과 만나는 장소가 당이다. 제주도에 절이 500개면 당이 500개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도인들에게 당은 신앙임과 동시에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도 바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곳을 찾는다.

서낭당에 자리하고 있는 이 나무는 수명이 380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 나무의 수명보다 더한 세월동안 그들은 이 곳에서 힘들었던 삶을 조금이라도 덜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정신적 힘을 주었던 장소로서의 표현을 해보고 싶었다.

(사진9) 당

당에서는 넓은 공간만큼이나 동네의 안녕을 위해 함께 모여 제를 지낸다. 신이 있어 잘 보살펴 달라고 빌기 위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저만치에서 제를 지내는 이들을, 또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신이 앉아서 지켜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사진10) 격납고

넓은 감자밭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격납고는 왠지 무덤(이렇게 어둡고 컴컴한 격납고 속에는 아직도 비행기가 숨어있는 느낌이다)처럼 느껴진다. 잃어버렸던 농토를 다시 찾은 기쁨과 동시에 빼앗겼던 아픔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욕망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이 “무덤”위에서 다시 찾은 농토에 대한 기쁨을 훌쩍 뛰어 나는 듯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어쩌면, 그 당시 제주도인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비참했던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진11) 해녀들

해녀의 작업을 ‘물질’이라 하는데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래서 저승길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일이다. 망사리를 건 태왁에 목숨줄을 잇고 20미터 깊이의 바다 속으로 자맥질해 내려가 2분 남짓 숨을 참고 해산물을 캐노라면 그야말로 이승의 일인지 저승의 일인지 아득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제주해녀들이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 때마다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는 ‘숨비소리(휘파람소리 같은)’에는 해녀의 삶과 안도, 고통과 후련함이 함께 느껴진다.

다른 사진이미지들에 비해 사진 11, 12는 다큐멘터리적인 성격이 짙다. 다른 사진들의 주제는 장소인데 반해 해녀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해녀들과 모델들은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고독해 보

인다.

그들은 이 거친 바다를 향해 오늘도 몸을 내 던진다. 생계를 위해 자신의 한 몸 저 작은 태왁에 몸을 의지한다.

(사진12) 어머니와 딸

제주의 여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모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맥질을 해서 해산물을 캐어 살림을 꾸려 나갔다. 제주여인들은 대개 열다섯 살쯤 물질(잠수하는 법)을 배워 익히고 스무 살쯤에는 어엿한 “해녀”로 독립하는데, 환갑을 넘겨도 물질을 계속하는 해녀들이 종종 있다.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만큼 고독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도 해녀였고 우리도 해녀다. 하지만 내 딸만은 해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속의 이미지를 표현해보고 싶었다. 눈을 감고 있는 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나란히 포즈를 잡은 모녀의 모습이 지독히도 강인해 보인다.

(사진13) 방사탑

방사탑은 마을의 기가 허한 곳에 세워져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곳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이 방사탑을 볼 수 있다. 해안가를 쭉 따라 가다보면 이처럼 많은 방사탑을 세우면서 행복을 기원했던 그네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풍요로움과 재난을 다 같이 극복하고자 했던 작은 바램들이, 쌓여진 돌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듯하다. 뻥뚫린 풍경 속에서 오히려 방사탑이 있어 든든한 밝은 미래를 예감케 한다.

원통을 이루는 수많은 돌들과 함께 3명의 모델들과 그 위의 동자석이 모두 함께 방사탑을 감싸 안아 지키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사진14) 숲

아무도 듣지 않는 숲 안에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미지이다. 그래서 한없이 연약해 보여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다. 모델에게 비춰진 한줄기 빛은 당시 암울했던 시절의 한가닥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제주도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건 왜일까?

(사진15) 숲

숲에 있으면 경건해 진다. 속세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많이들 빠지니까 말이다.

주위의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면 한낱 조그마한 인간뿐임을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외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 답답한 세상에서의 외침, 돌고 도는 회귀….

(사진16) 길

길은 희망을 상징한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길은 암울했던 제주도의 과거를 끌어안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앞을 보고 걸어가다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돌아 정면을 응시하는 이 모델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또한 뒤쪽의 밝은 빛은 희망찬 앞날을 상징해 준다.

IV. 결 론

지금도 제주도를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이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제주도민의 삶이 녹아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알고 보면 또 다르다. 송악산의 동굴이 내겐 그랬다. “어떻게 저런데 굴이 파여 있을까? 자연의 힘은 놀라워! 우와 멋지지 않냐” 인간이 판 굴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냥 제주도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장관을 자랑하니까 그런 것이려니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인간이 파놓은 굴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대포랑 무기들을 숨겨 공격하기 위한…. 송악산의 동굴은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판 굴이 아니라 일제가 본토를 사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굴이었다. 그 안이 미로처럼 연결되어져서 차들도 다닐 수 있었다는데, 알고 나서 보는 굴은 참 애처롭다. 어쩌다가 산 아래 절벽에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됐는지….

내 작품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삶을 일구어 나가는 강한 여성들이며, 이런 제주도인을 표현해내고 싶었다. 그 어떤 이념을 심어놓기 위함도 아니며, 이데올로기적 선상에서 피해 입은 제주도인을 대변하는 옷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이 작품들을 통해서 갈옷이 가지는 역사성과 다른 관점에서 보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 사진 속의 모델들은 그다지 세련되거나 아름다운 여성상이 아니다. 예전엔 몰라서, 아니 알면서도 빼앗겼던 그 장소에 그냥 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 사진들 속의 인물은 눈에 톡톡 들어오진 않는다. 갈옷 자체의 성격처럼 그 장소와 하나가 되어 묻어나올 뿐이다.

지나버린 흔적 앞에서의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엔 장소를 부각시켜야할지 모델을 부각시켜야할지조차 애매했다. 또한 제주도

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수없이 불어대는 바람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작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제주도의 사계절을 나타내 보고 싶은 욕심마저 생겼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작업을 꼭 다시 해보고 싶다. 이 작업은 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갈옷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출 등의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갈옷을 아끼고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의 논문이 제주도적인 갈옷을 세계로 알리는 데 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V.작품

작품 1 - 알뜨르 비행장

작품 2 - 바다

작품 3 - 무덤

작품 4 - 4·3 학살터

작품 5 - 환해장성

작품 6 - 백조일손지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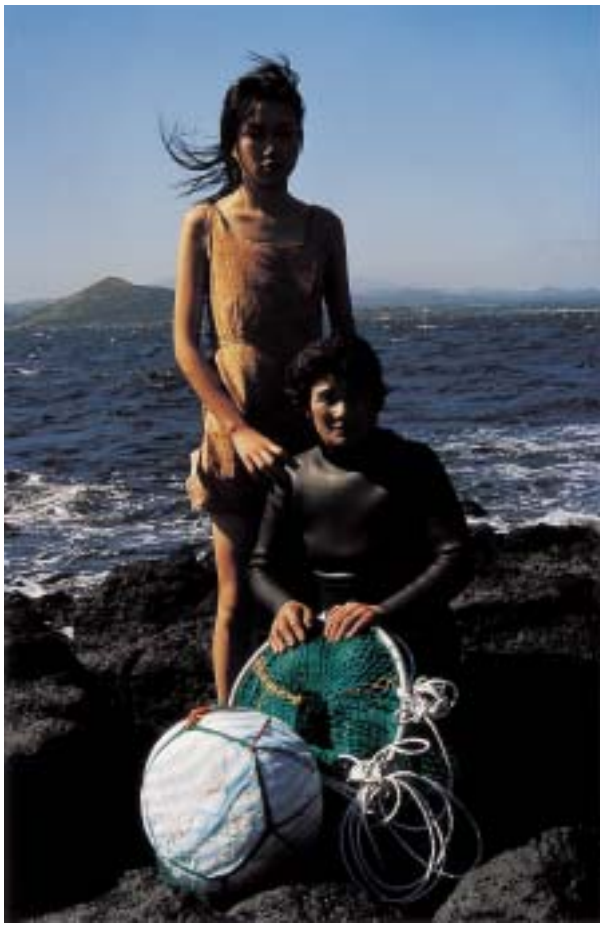
작품 7 - 산담

작품 8 - 서낭당

작품 9 - 당

작품 10 - 격납고

작품 11 - 해녀들



작품 12 - 어머니와 딸

작품 13 - 방사탑

작품 14 - 숲

작품 15 - 숲

작품 16 - 길

참고문헌

단행본

강수헌,『제주의 오름』, 서울, <대왕사>, 1996

강정효,『화산섬, 돌 이야기』, 제주, <도서출판 각>, 2000

고부자,『제주복식의 어제와 오늘』, 제주, <제주도>, 1986

송성대,『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2001

송재호,『제주 관광의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2002

박찬식·김일우·김동전·조성윤, 『이야기 제주사』, 제주, <제주민예총>, 2001

문무병·박찬식·문소연,『돌과 바람의 섬 신들의 나라 제주』, 제주, <제주도>, 2001

김영돈,『제주도 제주 사람』, 서울, <민속원>, 2000

논 문

고남수,『사진적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오름』, <경일대학교>, 2002

남윤자·홍명화,『제주도 갈옷의 위생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86

박순자·박덕자,『갈옷의 제작방법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994

이화영,『갈옷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8

이혜선,『갈옷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Photograph Works for 'Jeju Galot'

(An overview of photography *for the shooting of the 'Mongsangi'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Yoon, Sung hee
Major in AD Photos
Dept. of Photo Science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Sangmyong University

'Galot' was originally designed for a work clothes by ancient Jeju natives. We can find a slice of rationale and smart Jeju native's life.

In old times, texture is not sufficient so people in Jeju get a texture material from persimmon. The texture from persimmon is very useful because it is unnecessary to starch clothes. Besides if the Galot get dirt, it is removed easily when the people have a bath wearing a clothes. It is an essential work clothes for Jeju natives because they have to work all day long.

Nowadays it becomes more popular for people in summer times as outdoor garments, work clothes for farmers.

This paper was based on the shooting of editorial fashion

photography for 'Mongsangi' company. 'Monsangi' is a small venture company. It is on the beginning stage preparing the color from persimmon. Even though they don't have an active publicity activities it is known to the public and it is also on the air because 'Mongsangi' have focused on making 'Galot' for 7 years. Through hard work when the peoples think of 'Galot', 'Mongsangi' is the first brand image for people.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tinctive Jeju's folk clothes 'Galot' and its modernistic brand 'Mongsangi'.

'Galot' was a living witness in a tough history of Jeju. So this paper also shows a strong and independent character of Jeju natives.I took a photograph the house of their lives to express their spirit.

'Galot' became alike the color of soil in Jeju when the time passes away. Like as the 'Galot', People in Jeju adopted their lives to the nature. And I would like to catch the image through the lens.

This house indicates their tough history and the space of reconciliation. The spaces in my photographs shows not only the part of Jeju native's lives but also its living space. The spaces of Jeju are not only for tourism. It contains painful history but people can not recognize it easily. But today we, 'Mongsangi'try to express their grief and spirit through the 'Galot'. We can not live a contemporary age, but we can feel the spirit of Jeju native's.